



건강체크

우리 집 강아지 건강 지키세요

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심장사상충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.

□ 8세 진돗개의 수난
8살 된 개 한 마리가 병원에 왔다. 체중이 18kg에 달하는 암컷 진돗개였다.

결과 의심심이 커져 있었는데,이건 심장이 무리를 한 결과물이었다. 아무래도 심장과 폐동맥 사이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 정상적인 혈류를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했다.

□ 심장사상충의 생활사
저 개는 어떻게 해서 심장사상충에 감염됐을까. 답은 모기에 물려서다. 암컷 모기가 개를 물 때 그 안에 있던 유충이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.

에 달한다. 이런 벌레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다면 폐동맥의 입구가 좁아진다. 좁아진 통로로 혈액을 보내려다 보니 우심실에 과부하가 걸리고 열이 받은 심장은 더 힘을 내려고 근육을 기른다. 심장이 커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.

도 수명이 다한 벌레가 죽고 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 다른 혈관을 막는다면(이걸 색전증이라고 한다) 이 또한 개가 급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. 또한 기생충이 심장으로 들어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을 망가뜨리기도 한다.

학력거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데, 이 전에 진단하는 게 좋다. 많은 기생충이 대변을 통해 알을 외계로 내보내기 때문에 보통 대변 검사를 시행한다.

료방침을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. 문제는 치료다.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게 어렵다면,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.

■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

독자투고

교통사고 예방은 안전띠 착용부터



김창희 /곡성경찰서 경무계장

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사망자가 5명 발생했는데 이들 사망자 모두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한다.

자동차의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충격력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부상을 막기 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.

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겠다.

일사병·열사병, 원인과 대처법



선종문 /여서119안전센터 소방장

은 아니지만 보통 햇빛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성 응급질환을 통칭한다. 여름철 햇빛에 장시간 노출돼 수분과 염분이 몸 속에서 빠져나가며 발생한다. 체온이 40℃ 이하로 오르는 것이 특징이며 두통, 발한, 무기력증 등을 동반하지만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이다.

기후 변화로 요즘 프랑스와 영국, 미국 등 패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.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질 정도다.

를 시월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. 햇빛이 없는 그늘진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킨 후에는 단추, 벨트 등을 풀러 옷을 느슨하게 만들고 수분을 공급하도록 한다.

을 몸에 뿌리는 것도 체온을 효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. 이렇게 했음에도 증상이 계속 된다면 119에 전화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.

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amboo forest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.